

십대매매춘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최영희 / (사)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회장

“왜 원조교제를 하려고 했어요?”
—— “동생하고 같이 살 방이 없어서요. 방을 얻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왜 살집이 없었나요?”

“엄마는 제가 네 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IMF로 하던 일이 망해서 감옥에 가셨어요. 큰집에 가서 얹혀 사는데 큰집도 생활이 어려우니 눈치 보이고 힘들었어요. 할 수 없이 동생과 함께 큰집을 나와 청소년 쉼터에 가서 사는데 언니들이 그냥 노느니 돈이라도 벌자고 하며 방법을 알려 주기에...”

아이는 우리 어른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었다. 10대 매매춘 문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하던 TV 녹화장은 슬픔이 흘렀다. 가리개 속에서 변조되어 더 처량한 음성으로 사례를 발표하는 열 다섯 살 짜리 소녀의 고백은, 원인이 어찌구 대책이 어찌구 하면서 열심히 떠든 소위 전문가라는 우리들의 논리를 일격에 엎어 버리고 말았다.

가슴에 멍울이 맺힌 것 같아 답답했지만 어쨌든 녹화는 끝났다. 그러나 가리개 속에서 나온 소녀를 본 후 우린 더 착잡해질 수밖에 없었다. 노랑머리에 목에 건 핸드폰, 귀에 꽂은 이어폰, 험렁한 운동화, 두 살 아래라는 동생과 세트로 차려입은 화려한 옷차림. 매니큐어 칠한 긴 손톱과 여러 개 뚫어 건 귀걸이. 일상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욕지거리. 출연료를 받기 위해 서로 나가겠다고 손들었다는 이 철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숙제가 어깨를 짓누를 뿐이었다.

오는 7월1일이면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여 철없는 아이들을 요구하는, 즉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법이 시행된다.

‘이중처벌’이라거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론자도 있지만 90%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총체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에서 비롯되었기에 법만으로,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어른 아이 모두를 유혹하는 소비 향락문화,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돈벌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토, 사회전체의 도덕적 해이, 공범자 의식, 잘못된 음주문화·접대문화, 빼놓아진 성의식, 가정폭력·아동학대, 학교 부적응...

우린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펄펄 뛰고 있다.

미아리 텍사스촌에만 10대 매매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위 원조교제라는 10대 매매춘 행위가 교복입고 등교한 학생들 사이에서 호기심에, 부족한 용돈을 채우려, 화려한 옷을 위해 부끄러움도 없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르바이트 삼아 업소로 나가고, 다음 단계로는 윤락촌이다. 윤락촌에 집단으로 모여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일부라는 것이다.

절제를 알게 하는 가정교육, 화목한 가정 분위기, 가고 싶게 만드는 학교, 실수를 인정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사회, 모범을 보이는 어른들.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은 이 아이들에 대한 복귀 프로그램이고 그 보다 더 큰 과제는 예방 대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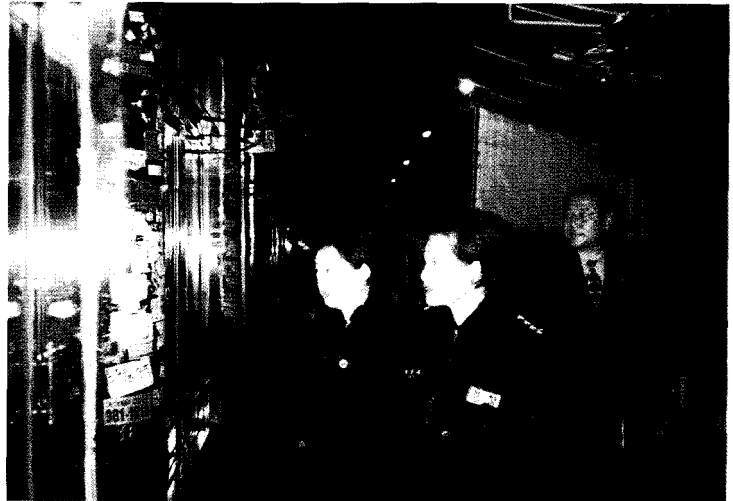
몇몇 종교인들이 헌신적으로 보살피던 아이들을 이젠 정부가, 지방자치 단체가 나서서 지원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세우고, 아이들의 특성과 입탈단계에 맞추어 의료 서비스를 받고, 상담하고, 장기 거주하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금년내로 시범 시설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다. 이것은 전국 단위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TV에서 뒤늦게 윤락녀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녀가 책가방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 이 소녀에게 다시 교육의 기

지 말자. 개인의 잘못된 가치관과 소비향락주의를 쫓는 아이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들이 거기까지 흘러가게 만든 원인 제공자들은 어른이니까.

다시 시작하자. 햇빛이 강하면 그림자는 상대적으로 짙어진다. 내 지식에게만 쏟은 지나친



▲10대 매매춘의 온상 미아리 텍사스

사랑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일탈행위를 유발하기도 한다.

경제적 여유와 관계없이 불행한 가정이 불행한 아이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가정교육도 새롭게 세우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관심을 갖자. 입시중심의 교육제도, 교사의 자질, 낙후된 교육시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의 관심 속에서만 해결 될 수 있다.

타락한 어른들의 돈주머니를 털기 위해 아이들을 희생물로 삼는 향락산업과 접대문화를 깨자.

예술이라는 가면을 쓰고 상업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에 가차없는 비판을 가하자. 그리고 딸·아들 지키기 운동이 어른들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을 잊지 말자. A (사진을 제공해주신 중앙경찰서 김강자 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한 미아리 텍사스촌의 비밀탈출구

회가 주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진솔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가르쳐서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원불교의 대안학교와 수녀들의 그룹홈이 모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윤락여성들이 과거와 같이 인신매매나 감금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이라는 이유로 포기해 버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이들을 포기하